

광주일보-시산맥 '제9회 동주문학상' 시상식



제9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30일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산맥 문정영 대표, 심사위원장 장석주 시인, 해외신인상 김수수 시인, 해외작가상 서연우 시인, 동주문학상 원도이 시인, 심사위원 김이름 시인, 광주일보 박성천 문화부장. /최현배 기자 cho@kwangju.co.kr

광주일보(회장 김여승)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공동 주관하는 제9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김필영 시산맥사회 회장, 시산맥회원, 진혜진 상사인 대표 등 문예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민서 시인(시산맥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 수상자들도 참석했다.

이경립 시인은 축사에서 "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끝까지 문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 감사하다"며 "동주문학상이 한국문학을 확산하고 수준 높은 문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9회 동주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원도이 시인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수상작은 '토마토 파티잔' 등 5편.

원도이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절망적인 시대에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고뇌한 운동주 시인의 내면과 슬픔에 대해 생각을 했다"며 "동주문학상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시인으로 남을 수 있

해외 수상자 등 300여명 참석 본상 원도이 시인, 상금 1천만원

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시인동네'로 등단한 원 시인은 2020년 시집 '비로소 내가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펴냈으며 2024년 문화예술위 창작지원금을 수혜 받았다.

심사위원장 장석주 시인은 "들쭉날쭉하지 않은 시적 성취에 이른 점, 낮익은 사물을 낯설게 인지하는 가운데 의미의 장력을 매우 능숙하게 만드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 공동 수상자인 서연우 시인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미국 LA에서 활동 중인 서 시인은 2014년 '미주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빛소리가 길고양이처럼 지나간다'를 발간했다.

공동 수상자인 윤희경 시인에게도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윤 시인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8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바 있다.

제5회 동주해외신인상 수상자 김수수 시인에게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전달됐다. 김수수 시인은 제19회, 24회 재외동포문학상을 받았으며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동주문학상 시상식과 겸해 제3회 기후환경문학상 및 신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문학상에 민은숙, 최서정 시인이 공동 선정됐으며 신인상은 한명희 시인에게 돌아갔다.

또한 최지원신인문학상 수상자인 이형욱 시인에게 시산맥 등단패가 증정됐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한동대 송위성 학생에게 서시장학증서가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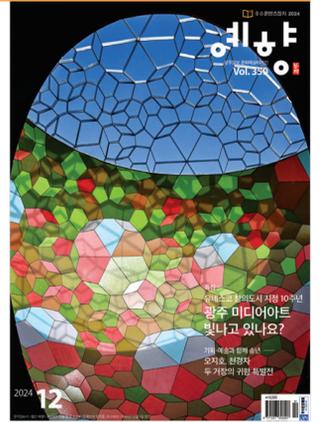
시상식 중간에는 최지원신인문학상 수상자인 이형욱 시인이 플롯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뽐냈다. 이에 앞서 식전 행사로 김혜전 시인의 운동주 시인에 대한 헌다 및 헌화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있어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일보사와 함께 운동주 시인의 정신을 선양하고 문학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예향

'광주 미디어아트' 조명 '예향 초대석' 황현필 소장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기행



올해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빛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12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 회원도시에 가입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12월호 특집으로 '광주 미디어아트, 빛나고 있나요?'를 준비했다. 그동안 광주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힘써왔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현주소와 도시 미래를 바꾼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다.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황 소장은 구독자 106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저술, 강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신간 '진보를 위한 역사' 출간과 다류 '독립전쟁' 제작에 발 벗고 나섰다.

해외문화기행은 베니스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미술관으로 안내한다. 수상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는 '숨겨진 보석'이 있다. 전설적인 현대미술 컬렉터 폐기 구겐하임 여사가 건립한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이다. 미술관이지만 컬렉션이라는 간판을 단 건 그녀가 평생 수집한 미술품들이 모태

가 됐기 때문이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와 함께 베니스의 브랜드가 된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에는 피카소, 앤디 워홀, 마크 로스코, 뒤샹, 칸딘스키 등 20세기 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들을 만날 수 있다.

송년 기획 '2024 문화계 결산'도 준비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문화계였다. 전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물론, 30주년을 맞은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의 명과 암, 지역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 등 2024년 한 해를 장식했던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한다.

'맛과 맛 함께, 남도 유람'은 함평으로 떠나는 겨울여행이다. 봄 '함평 나비축제', 가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이어 '함평 겨울밤 빛축제'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함평박쥐상과 돌머리 해수욕장 낙조, 해수점, 자동차극장 등에도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사계절 머무르고 힐링하는 여행지' 함평천지(咸平天池)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자. 이외에 한국화단의 두 거장을 만날 수 있는 '오지호 인상주의: 빛의 악동에서 색채로',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지면으로 만나본다. 드라마 '정년이' 신드롬으로 본 여성극단 이야기와 '정년이' 촬영지로 각광받는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야기도 흥미롭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웅장한 대서사시

광주시립합창단 연주회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선 웅장한 대서사시이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정교한 대위법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멜로디는 관객들에게 종교·철학적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이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친다. 임창은 상임지휘자 취임을 기념하는 연주회로 오르가니스트·첼리스트 아렌트 호로스펠트를 비롯해 알토 김선정, 베이스 김대수 등이 출연한다.

'신포니아' 서곡으로 시작하는 1부 '예언과 탄생'은 테너들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로 이어진다. 코라스가 함께 부르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가 깨끗하게 하시리라'를 비롯해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등도 울려 퍼진다. 알토 파트는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하리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등을 부른다. 오라토리오 특성상 배우들의 연기는 없고 종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지만, 서사적인 대규모 악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2부 주제는 '수난과 속죄'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죄를 속죄했던 대목이 담겨 있

다. 먼저 '진실로 그가 괴로움을 감당하시'로 막을 올린 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았도다', 베이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등이 계속된다. 끝으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주가 살아 계심을 나는 압니다', '나팔이 울리리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림 품은 클래식, 이웃 사랑 연주합니다

디사이플챔버오케스트라, 오늘 광주빅토리안갤러리서 연주회

관객들은 2층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과 함께 챔버 오케스트라를 마주하게 된다. 오는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빅토리안갤러리에서 펼쳐지는 '그림과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 2중 음악회' 모습이다.

디사이플챔버오케스트라(대표 박진희)가 펼치는 이번 연주회는 몸이 불편해 음악회나 전시회를 자주 접하기 어려운 지역 노인 등을 주 관객으로 삼는다.

먼저 소프라노 표현진(광주시립합창단)의 가곡 '눈'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수진(광주시립교향악단) '타이스의 명상곡'이 울려 퍼진다. 그중 마스네 작 '타이스의 명상곡'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에서 김연아 선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손경민의 '인내', 엔리코 모리코네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비롯해 바흐 '에어', 롤프 리블란 'You raise me up'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브람스가 기존의 헝가리 집시들의 멜로디를 편곡한 '헝가리 무곡 5번' 등 다양한 가곡과 소품들이 관객을 만난다.

디사이플챔버오케스트라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단원들이 음악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뭉친 단체다. 이들은 목포시민문화예술



디사이플챔버오케스트라의 지난 공연 장면. (디사이플챔버오케스트라 제공)

회관 등에서 지역 관객들을 만나 왔다.

오송석 상임지휘자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5년째 이어져 온 재능기부 형식의 공연이다"며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기는 무대를 위해 단원들이 열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했다.

무료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